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9년 표어 §

"거룩한 교회 · 민족의 구원선 되게 하소서"
(히 13:12-16, 합 3:2)

十 행동 지침 十

- 1. 교회의 거룩성 회복하여 민족의 희망
- 2. 믿음의 대를 잇는 예배공동체, 선교공동체
- 3. 하나님 역사 속의 행동하는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요한복음 강해

각 사람을 위한 빛 II

(요 1:9)

이종윤 원로목사



2. 각 사람에게 비추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요 1:9)

‘각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판타 안스로폰’입니다. ‘판타’라는 말은 영어로 ‘all’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라는 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every’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읽으면 신학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냐, 아니면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요즈음에 무서운 신학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몇 사람과 신학자 몇 사람이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의 광장을 찾아야 된다고 해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감리교신학대학의 교수 한 분이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독선과 야집에 빠지면 안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혼합주의, 혼합종교’라고 합니다. 한국에 혼합주의 종교가 받을 디딘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입니다. 미국에 ‘Unitarian Church’가 있는데 이 유니테리안 교파에서 혼합종교를 부르짖습니다. 공자를 통해서도, 맹자를 통해서도, 석가를 통해서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진리를 찾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all’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각 사람이라고 한 한국말 성경이 번역을 참 잘 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인간을 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인류 전체에게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추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믿는 자에게만 비추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16은 우리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구원을 주셨다고 믿는 것이 ‘알미니안즘’(Alminianism)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구주가 되신다고 하면 이것을 ‘유니버살리즘’(Universalism)이라고 합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칼빈주의(Calvinism)를 주장하는데 ‘믿는 자마다’ 믿는 데에 액센트를 줍니다. 장로교는 ‘누구든지’가 아니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Universalism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각 사람에게 왔다고 하는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빛을 비취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비취주신 것이 아닙니다.

3. 빛을 받은 자

우리는 백년 전의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와서 40년간 수고하시던 아치볼드 캄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서울 장안을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장안은 사람들이 여자를 천대하여 자기의 딸을 팔고 아내를 천대하여 거리에서 머리채를 끌고 다니고 아내를 매를 맞고 의사는 먹고 살기 위한 상술로 환자를 대하고 있으며 문둥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소경과 거지들이 거리에 우글거린다.” 백년 전에 인신매매가 있었고 딸을 낳으면 얹어놓고 죽여버리고 이 세상의 여자들은 밤상 위에 밥그릇을 올려놓고 먹지 못했고 사회정의가 다 무너지고 어디에서 무슨 공의적인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고 거지떼가 다녀도 누구하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우리 사회, 어둠으로 짙어 있던 백여 년 전 이 땅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캄벨 선교사는 이어서 “이와 같은 한국이 지금 변화를 받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취어져서 그 땅에 밝은 광명이 비취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활이 변하고 열매가 맺히고,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캄벨 선교사는 그 한 실례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오인호라고 하는 한국 유학생이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청운의 꿈을 품은 유학생으로 갔다가 너무 고향이 그리고 가족이 그리워서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편지를 부치러 우체국으로 가다가 그 동네 깡패들한테 붙잡혀서 매를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 가족은 너무 분하고 원통했지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아들이 못다 한 일을 남아있는 생애 동안 하겠다고 부모와 형제들이 결심을 하고 미국에 장례를 하러 갔습니다. 필라델피아 시장이 상금을 모아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했으나 가족들은 그 성금에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 보태어 오히려 재판관을 그 깡패들을 위한 변호사를 사고 그 깡패들을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였습니다. 감옥에 넣지 않고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시키고 그들이 대학을 다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고 그들과 그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미담을 남겼습니다.

마침내 필라델피아 시민들이 이 소식을 신문을 통해서 읽고 감격해서 다시 성금을 모아 ‘오인호 기념관’을 필라델피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필라델피아 최초의 한인교회가 설립되었고 그 오인호 씨의 형님 되시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한인교회 최초의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취지면 내 마음에만 환한 빛이 비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하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져서 빛 된 삶, 빛 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2019 여름성경학교·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유년·초등·중등·고등부 : 7월 25일(목)~27일(토), 아가페타운

2019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롭게 진행 중이다.

어제 7월 25일(목)~27일(토)은 유년·초등부 수련회가 'I am a Christian (신 6:18-19)' 주제로 박미라 전도사의 지도로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또한 중등·고등부의 여름성경학교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수 23:3)"라는 주제로 최승원

전도사의 지도하에 은혜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더운 날씨와 좁은 공간 등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린 영혼들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신 교역자, 교사,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덥고 습한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힘을 얻는 여름성경학교·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부서	일정	장소	주제	교역자
유년부	7월 25(목) - 27일(토)	아가페타운	I am a Christian (신 6:18-19)	박미라 전도사
초등부				
중등부	7월 25(목) - 27일(토)	아가페타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 (수 23:3)	최승원 전도사
고등부				
청년1부	8월 15일(목) -17일(토)	아가페타운	순전히 만나게 하소서 (창 24:12)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에바다부	8월 15일(목)	서울교회	도우시는 하나님 (시 121:1-2)	서명철 목사



교회 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박동식·유하영 감우균·김연화1 장호립 윤종현1 이강전·양일순 이영조·이영자 이주현7·이주영 김현영 김종철·주성숙 장창수·박혜정3 무 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7월 의료선교 상담 일정

- 7월 21일: 노제현(안과), 김동준(내과)
- 7월 28일: 노선균(흉부외과), 정현구(치과)
- 예약상담 : 정현구 집사 010-2728-5939

다락방 리더훈련 중강

다락방 리더 훈련 개강 : 9월 4일(수)
다락방 개학 : 9월 6일(금)

상반기 다락방 리더훈련이 지난 7월 17일(수)에 종강하였으며 혹서기를 맞아 다락방은 7월 26일(금)부터 방학한다.

다락방 리더훈련 개강은 9월 4일(수)이다.
다락방 개학은 9월 6일(금)이다.

2019 농·어촌전도 은혜중에 마쳐

농·어촌교회의 자립을 목적으로 시작한 '농어촌 100교회운동'의 일환인 '농·어촌전도'가 2019년 올해도 은혜 가운데 마쳤다.

지난 7월 14일(주) 의료봉사팀과 15일(월) 지원팀, 축호전도팀, 이·미용팀, 만나팀, 여름성경학교

팀, 이상 총 6개 팀 50여 명이 파송받아 강원도 고성 대진중앙교회에서 모든 일정을 은혜 중에 마쳤다.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신 모든 전도대와 기도도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19 농·어촌전도대 - 보고드립니다

전도대가 먼저 은혜받은 전도의 현장!



채교천 집사 (2019 농어촌전도대 전도2팀)

농·어촌전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축호전도팀, 이·미용팀, 만나팀, 여름성경학교팀, 지원팀이 7월 15일(월)부터 7월 18일(목)까지 기도와 봉사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전도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7. 14(주일)

마을주민들과 대진중앙교회 성도들 60여 분에게 영양제 주사·초음파 검사·치과·정형외과·내과·안과의 진료와 치료 등 은혜로운 사역이 치료 받은 분들은 물론 마을주민들 모두의 마음문을 열게 하였고 축호전도의 길을 더욱 탄탄하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급한 성령님의 인도 하심으로 총 50여 명으로 구성된 농어촌 전도대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대진중앙교회에서 의료봉사팀이 7월 14일(주일), 마을주민들 진료와 치료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9

7. 15(월)

9시 30분, 출발에 앞서 장석남목사님의 출발 기도와 최광성 장로님의 당부 말씀, 홍창훈 집사님의 행사일정 소개가 있었고 대진중앙교회에 오후 2시에 도착, 감사예배를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말씀을 주제로 드렸습니다. 대진중앙교회 김춘기 목사님이 그 동안은 이름없이 작은 교회로 불리우던 교회가 이제는 누구나 『대진중앙교회』로 부르며 서울교회 여러분의 전도로 교회 이름을 찾게 해주어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여러분이 작년에 전도한 새신자가 또 다른 새신자를 전도한다는 반가운 소식의 환영인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힘입어 찬양과 기도 후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축호전도팀은 3개조로 지역을 나누어 바로 노방전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이·미용팀, 여름성경학교팀, 만나팀, 지원팀의 사역도 각 장소에서 동시에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7. 16(화)

새벽 6시 서명철 목사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로 새벽예배를 드리고 아침식사 후 각 팀별로 기도회를 갖고 전도물품을 챙겨서 10시부터 오전 전도 시작, 12시 점심식 (3면에 계속)

사 후 오전 전도 보고서 작성, 오후 전도 전 기도과 찬송으로 은혜 받고 오후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6시 저녁식사 후 전도보고서 작성과 전도자를 위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7. 17(수)

새벽 6시 '기쁜 소식을 전하자'라는 제목으로 새벽예배(말씀과 기도:서명철 목사님)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오전 전도 전 찬송과 기도로 주님이 명령하신 사역을 시작하고 12시 점심 식사 후 오전 전도 보고서 작성과 전도자를 위한 기도와 찬송을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전도한 분들의 저녁잔치 참석 독려를 겸한 오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요예배와 전도 받은 이들의 환영 잔치를 위하여 만나팀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저녁 6시 30분 한대석 집사의 수요예배 전 찬양 인도가 있었고 7시부터 수요예배 및 저녁식사 초대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진중앙교회 장로님의 기도, 서울교회 청년부 특송, 대진중앙교회 여름성경학교 어린이들의 귀여운 율동과 찬양으로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미소와 박수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었

습니다. 대진초등학교의 전교생이 35명 이라고 하는데 그 절반의 어린이가 대진중앙교회에 모이는 기쁨이 있었고, 또 처음으로 교회를 찾은 이가 29분이나 되는 대진중앙교회 생김 이후로 처음 경험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춘기 목사님의 그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에 힘이 넘쳤고 우리 서울교회 전도대원들도 뜨거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만나팀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를 오신 분들께 대접하며 그 분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서울교회 전도대원들의 모습이 마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다시 살아 온 듯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서로 헤어짐을 아쉬워하며 그 분들을 땀까지 모셔다 드리고 우리는 늦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벅찬 감동을 안고 숙소로 돌아와 피곤도 잊은 채 이야기 꽃들을 피우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서울교회도 회복 되기를.....!!

7. 18(목)

떠나는 날.

오늘도 변함없이 5시에 기상하여 6시 '초대교회 성도의 참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예배(말씀과 기도:서명철 목사님)를 드렸습니다. 새벽예배가 끝

나고 김춘기 목사님의 송별인사가 있었는데 그 진한 여운의 말씀을 여기에 적어봅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최북단의 땅끝에서 전도하셨고 둘째로 가난하고 늙고 병 들어 약한 자를 한 영혼 한 영혼 찾아 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렵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마리아에 가서서 예수님처럼 손을 벌려 그들을 안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의 늘 서울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이번 2019 농어촌전도대 사역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봉사팀- 62명, 이·미용팀-107명, 어린이사역팀-51명, 축호전도팀-147명!

수고를 수고로 생각하지 않고 5일 간을 아무런 잡음 한마디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들로부터 전도하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받은 현장!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수고로 물 흐르듯 진행된 이 행사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사진 : 안선광 집사)





주미영 성도(미국 뉴욕)

저희 가정은 뉴욕 퀸즈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큰 아이 은울이의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우리 은울이와 지율이가 서울교회 유아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설렘었습니다.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란 주제로 7월 13일에 교회에서 진행 되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환영해주셔서 참여하는 아이들마다 표정이 너무 밝고 신나보였습니다.

찬양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을 따라 즐겁게 찬양 드리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도 초롱초롱한 눈으로 집중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물놀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환호성 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니다. 모든 선생님들은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 모습을 보시며 함께 즐거워 하였고 물놀이가 끝난 후에는 모든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하나하나 챙기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모든 순서에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이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거웠던 기억을 만들어 주는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어릴적 기억이 났습니다. 저 또한 많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좋았던 기억들을 가질 수 있어서 마음 몽클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마무리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두 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외쳤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기억에 남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들로 자랄 거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은울이와 지율이에게도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즐겁고 행복했던 서울교회 여름성경학교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Bus Metro Walking

B.M.W. 운동

동정

■ 표창장 수여: 12교구 정병무 은퇴장로
7월 17일(수) 용인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 개업: 5교구 조대선 성도
'제일주차장', '420퍼보 쌀국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0 신남문빌딩 지하 2층 420퍼보
02) 318-3399

■ 금주의 식사: 서문석 장로 ·한춘홍 권사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돼지불고기 김치볶음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2. 우리 교회의 모든 송사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교회가 속히 회복되어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3. 한일 간의 갈등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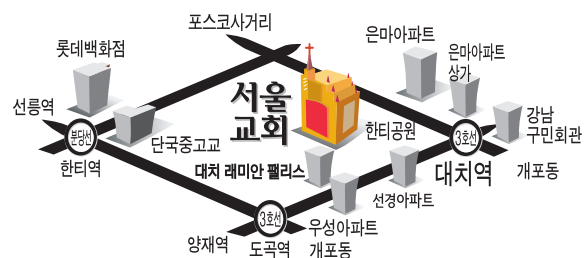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22일	월	전 7-12		민 4-7	
7월23일	화	아 1-8		민 8-12	
7월24일	수	사 1		민 13-16	
7월25일	목	사 2-4		민 17-22	
7월26일	금	사 5-8		민 23-28	
7월27일	토	사 9-11		민 29-32	
7월28일	주일	사 12-17		민 33-36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 5:39)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